

<OVS 문학 - 수특 운문편>

- 저자 : 유대종(메가스터디 강사), 강세진(고려대, 연구소 교재 팀장)
- 검토자 : 김혜린(서울대), 권태균(성균관대), 박한울(서울대), 주현호(고려대)

1) 낙화 - 조지훈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라.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담이가
우련 붉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S :
- BL :
- E :
- R :
- 수식+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2. 표면화된 화자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
3. 시적 화자의 정서를 영탄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
4. 하강적 이미지를 통하여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5.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애상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
6. 자문자답의 형태로 시상을 전개하여 극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시 해석] 1) 낙화 - 조지훈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라.

해석 화자는 바람 때문에 꽃이 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스러지고

해석 주렴은 '구슬 따위를 꿰어 만든 발'인데, 그 바깥을 보니 별이 듬성듬성 있다. 하나, 둘씩 스러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스러지다'는 형체나 현상 따위가 점차 희미해진다는 의미이다.

귀족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해석 소쩍새의 울음에 관심을 갖았다가 화자는 멀리 있는 산을 본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해석 촛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확실치 않다. 다만, 바로 '꽃이 진다'는 구절을 보아, 꽃이 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촛불을 끈 것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해석 화자는 계속 '꽃이 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 꽃의 그림자는 뜰 위에 생겨났고, 화자는 그것을 보고 있다.

하이얀 미닫이가
우련 붉어라.

해석 꽃은 붉은 꽃인가 보다. 흰색 미닫이창에 비치는 꽃의 붉은 빛을 보고 있다.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해석 '묻혀서 사는 이'는 속세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화자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있다. 유추하건대, 이 '묻혀서 사는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화자 자신일 게다.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해석 화자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한다. '저어하다'는 말은 정확히 이거라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전반적인 문맥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화자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해석 화자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는 이 순간에 꽃이 지는 아침이기 때문에 화자는 매우 서글프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는 아름다운 꽃의 지는 모습을 통해 화자는 세상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애상감을 드러내는 시라고 말할 수 있겠다.

2) 그날이 오면 - 심훈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漢江)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鐘路)의 인경(人磬)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頭蓋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恨)이 남으리까.

그 날이 와서, 오오 그 날이 와서
육조(六曹)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行列)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 S :
- BL :
- E :
- R :
- 수식+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
2.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 ×)
3. 지시 관형사와 가정을 통해 화자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
4.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5. 가정과 반복을 통해 화자의 염원을 간접하게 드러내고 있다. (○, ×)
6. 의인법을 통하여 '그 날'이 되었을 때 화자가 누릴 기쁨을 형상화하고 있다. (○, ×)
7. 자신의 희생을 거부하는 대상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
8. <보기>제시형 '한강물'이 용솟음치는 장면에서 그동안 대상을 억압했던 화자의 후회를 확인할 수 있겠군. (○, ×)

1. ○, 2. ×, 3. ○, 4. ○, 5. ○, 6. ○, 7. ×, 8. ×

[시 해석] 2) 그날이 오면 - 심훈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漢江)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한다면

해석 그 날이 오면 마치 삼각산이 일어나 춤을 출 수도 있을 만큼 기분이 좋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을 칠 만큼 기분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 자신의 목숨이 끊기 전에 와 주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鐘路)의 인경(人磬)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頭蓋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恨)이 남으리까.

해석 화자는 밤하늘을 나는 까마귀처럼 날아서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고 싶다는데, 이 역시 위의 구절과 마찬가지로 '화자 자신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자신의 머리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그날이 왔기 때문에' 무척 기뻐서 죽는 것이므로 어떤 한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날이 와서, 오오 그 날이 와서
육조(六曹)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行列)에 앞장을 서오리다.

해석 여기서는 아까와 다른 상황이다. 1연에는 '그 날이 오면'이란 가정적인 상황을 드러냈는데, 여기에서는 '그 날이 왔다' 따라서 현재를 드러내는 것이리라. 화자는 '그날이 오는 이 현재'에 육조라는 중앙관청 앞에 있는 넓은 길에서, '울며, 뛰며, 뒹굴어도' 넘치는 이 벅찬 가슴에 미어질 것 같다면, 칼로 가죽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 여러분의 행렬 맨 앞에 서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해석 그리고 만약,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날'은 외재적 관점을 고려할 때, '광복'일 것이다. 즉, 화자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광복에 대한 자신의 기쁨을 맘껏 표출하고 있는 것이리라.

3) 즐거운 편지 - 황동규

- 1 -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2 -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S :
- BL :
- E :
- R :
- 수식+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
2.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
3.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4. 그대가 지닌 기다림의 자세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
5. 계절의 순환을 통해 인생에 대한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
6. 화자를 생각하는 대상의 모습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
7.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
8. 연쇄법을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상황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7. ×, 8. ×

[시 해석] 3) 즐거운 편지 - 황동규

- 1 -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해석 화자는 '그대'를 생각하고 있다. 이 일은 '그대가 항상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아주 사소한 일과 같다고 화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 이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고 싶다고 한다. 즉, 그대가 힘들 때 지켜 주고 싶은 화자의 생각이 담겨 있으리라.

- 2 -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해석 화자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그대를 향한 사랑을 바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다림'으로 바꾸어 인내하고 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밤이 들자 골짜기에 눈이 퍼붓는다고 한다. 이 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과 같다. 영원히 내리는 눈이 없듯이 말이다. 화자는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한다. 즉, 화자 자신의 사랑도 언젠가는 그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다만, 그때 화자는 초반에 언급하였던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 다시 언급한다. 그리고 다시 '눈이 그치는 상황, 꽃이 피어나는 상황, 낙엽이 떨어지는 사랑, 그리고 또 다시 눈이 퍼붓는 상황'에 대해서 말한다. 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 눈이 내리면, 언젠가 그치고, 꽃이 피면 언젠가 지기 마련이다. 화자는 자신의 사랑이 이렇게 일시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인 사랑'이 아닌 '기다림이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편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대를 사랑하는 기다림의 자세' 그 자체가 화자에게는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4) 흥부 부부상 - 박재삼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S :
- BL :
- E :
- R :
- 수식+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화자가 시적 대상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 ×)
2. 시적 대상들이 지닌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 ×)
3. 부정적인 상황이 개선되리는 믿음이 '금', '물살'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 ×)
4.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여 '구슬'과 '황금 벼이삭'의 부정적 속성을 폭로하고 있다. (○, ×)
5. '거울면에 온 구슬'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느끼는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 ×)
6. <보기>제시형 박덩이를 가른 후에야 비로소 미소 짓는 흥부 부부의 모습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군. (○, ×)

1. O, 2. ×, 3. ×, 4. ×, 5. ×, 6. ×

[시 해석] 4) 흥부 부부상 - 박재삼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해석 흥부 부부는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박을 가르기 전에 서로 웃음을 짓는다. 그러면서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가난해도 서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따라서 물질적인 금이나 황금 벼이삭은 ‘흥부 부부’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화자가 볼 때, 그들이 지닌 아름다운 태도, 그것을 화자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웃음의 물살, 즉 반짝이고 아름다운 웃음’에 해당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해석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떡을 찧을 쌀도 없다. 그러나 없는 떡방아 소리도 마치 있는 듯이 들어낼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있다. 손발이 닳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웃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거울 면’이라고 하였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웃음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거울을 본 듯한 느낌을 부여 받은 것이리라.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러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해석 그렇게 웃다가 서로 불쌍하기도 한가 보다. 그때 서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한다. 가난이 싫고, 부정적이었으면 이 ‘구슬’은 한탄으로 읽혔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눈물도 한없이 부정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흘러진 눈물 또는 연민에 흘린 눈물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흥부 부부는 저절로 흘린 자신들의 눈물을 서로 부끄러워하며, 멀리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그들도 소스라친다. 그러다가 다시 자신들의 웃음을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며 믿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화자는 그것을 문제라고 말하면서, 어떤 삶의 자세가 중요한지를 ‘흥부부부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5) 아침 이미지1 - 박남수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屈服)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物象)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勞動)의 시간(時間)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地上)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太陽)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開闢)을 한다.

- S :
- BL :
- E :
- R :
- 수식+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밀감을 조성하고 있다. (○, ×)
2.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통해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3.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
4. '아침'에 드러나는 만물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
5. '노동의 시간'은 개벽을 하는 아침과 대비되어 물상들의 고통을 드러낸다. (○, ×)
6. '어둠'이 땅 위에 굴복하는 것을 통해 '어둠'이 시련의 시간으로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1. ×, 2. ×, 3. ○ (태양의 즐거운 울림), 4. ○, 5. ×, 6. ×

[시 해석] 5) 아침 이미지1 - 박남수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해석 어둠은 새를 낳는다. 물론 어둠은 새를 낳을 수 없다. 어둠은 우리가 보는 시간적 배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말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상상해 보자. 즉, 어둠이 '새도 낳고, 돌도 낳고, 꽃도 낳은' 상황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깨달아 보자.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屈服)한다.

해석 아침이 되면, 어둠은 사라진다. 이를 화자는 '온갖 물상을 돌려준다'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 앞서 말했던 '낳는다'는 말도, 결국 어둠 속에 묻혀 있던 그 대상이 아침이 밝아옴에 따라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화자는 이를 또다시 '굴복'이란 단어를 통해 어둠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리하자면, 어둠은 '새, 돌, 꽃'과 같은 온갖 물상을 낳는데, 이 말은 '아침이 밝아질 때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의미인 것이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物像)들은 몸을 움직이며
노동(勞動)의 시간(時間)을 즐기고 있다.

해석 아침이 되자, 온갖 물상들은 무거운 어깨를 털고 몸을 움직인다. 아침에 활동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다.

즐거운 지상(地上)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太陽)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開闢)을 한다.

해석 여전히 아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이 아침을 '지상의 잔치'라고 표현하며, '즐거운 울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아침에 나타나는 현상을 생기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다시 '개벽'이라고 표현한 것일까? 아침의 이 산뜻하고 새로운 모습이 마치 세상이 처음 열린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는 '아침의 이 아름다운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6)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김기택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겹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를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S :
- BL :
- E :
- R :
- 수식+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생생함을 드러내고 있다. (○, ×)
2.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3. '너무 단단한 벽'은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4. '별빛'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과 시적 의미가 유사하다. (○, ×)
5. <보기> 제시항 '현란한 빛'과 방 안 가득 들어오는 '풀벌레 울음'을 고려할 때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화려함에 있음을 알 수 있군. (○, ×)

1. ○, 2. × (발뒤꿈치처럼), 3. ×, 4. × (서로 대조적), 5. ×

[시 해석] 6)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김기택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해석 화자는 텔레비전을 껐다. 소리가 사라지니 화자의 귀에 '풀벌레 소리'가 들리었다. 그 소리는 TV 소리에 묻힐 정도로 작았는데, TV를 끄니 그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다. 그만큼 조용하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정적이 흐르는 밤이니, 더욱 조용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해석 어둠 속에서 '벌레 소리'를 들으니깐 똑똑히 귀에 꽂히나 보다. '환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또한 별빛의 환한 이미지처럼 소리가 맑고 경쾌한가 보다. 그리고 자세히 들으니, 귀뚜라미와 여치 울음소리는 뚜렷하게 들리는데, 그 사이사이에 무척 작아서 들리지 않는 벌레소리도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화자는 주의 깊게 자기 방에 가득 찬 소리의 주인을 찾고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해석 화자는 윗글에 언급한 풀벌레들을 생각한다. 그런데, 소리를 내는 '입'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귀'를 생각한다. 이는 벌레들은 서로의 귀를 통해 자기네들의 소리를 인식하지만, 화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화자는 '풀벌레의 귀'를 '까맣고 좁은 통로'라고 생각하는데, 어둡고 침침한 의미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린 마음'을 생각하고 있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해석 그들은 매일같이 울었는데, 화자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상황을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라고 말한다.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에 자신을 빼앗길 때, 그 울음소리가 수없이 화자를 찾아왔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즉,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풀벌레 소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성찰이라고 한다.

하루살이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를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해석 화자는 그 풀벌레소리가 마치 '하루살이'처럼 전등에 부딪쳐서 죽은 것처럼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TV 소리는 사라졌고, 화자의 귀에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 화자는 밤공기를 크게 들이 쉬면서 '풀벌레 소리'를 감상한다. 숨을 쉬면서 듣는 그 소리의 환함이 허파에 차는 듯 그 느낌을 헤아리고 있다.

이 시는 아주 작은 풀벌레 소리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잊고 사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7) 산유화 -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 S :
- BL :
- E :
- R :
- 수식+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
2. 유사한 구조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
3. 특정한 음보율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
4.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
5. 관조적 어조를 사용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
6. 구체적 지명을 사용하여 화자의 풍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1. ×, 2. ○, 3. ○, 4. ○, 5. ○, 6. ×

[시 해석] 7) 산유화 -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해석 산에 꽃이 피고 있다. 화자는 그것을 보고 있다. 그리고 가을, 봄, 여름, 이러한 계절에 걸쳐 꽃이 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을, 봄, 여름이 없다고 해석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데, 꽃이 피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가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볼 때, 가을, 봄, 여름 가릴 것 없이 꽃이 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해석 그런데, 산에 피는 꽃은 같이 피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피어 있다. 꽃이 거리를 두고 혼자 피어 있는데, 여기서 포착해야 할 장면은 이 '거리감'이다. 화자와 부정적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것인지,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꽃이 화자와의 사회적 유대감을 나누지 않고, 홀로 피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해석 이번에 화자는 산에서 우는 작은 새를 본다. 그 새는 마치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때 '울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자연스러울까? 꽃이 좋아서 우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2연과 더불어 '홀로 있는 꽃'처럼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의미로 '울다'로 해석해도 된다. 다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꽃이 좋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해석 화자는 이번에 ‘산에서 지는’ 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꽃이 영원히 필 수는 없다. 화자는 1연에서 꽃이 핀 사실을 언급하였고, 마지막 연에 꽃이 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연과 마찬가지로, 가을, 봄, 여름 할 것 없이 지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꽃의 폼과 짐’, 그리고 ‘홀로 펴 있는 꽃’, 그리고 ‘산에서 우는 작은 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자연스러울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사실은 ‘자연이 순환’한다는 사실이다. ‘피는 것’과 ‘지는 것’은 계절이 순환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화자는 자연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 외에 ‘인간의 고독함’, 또는 ‘화자의 고독한 상황’을 드러낸다는 해석, ‘자연의 영원함’과 다른 ‘인간의 유한성’ 등은 <보기>로 제시될 때, 해당 견해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내재적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 보통의 학생이라면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성’을 비교하면서 이 <산유화>를 해석하기 힘들다. 만약, 이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연은 피고 지지만 결국 영원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결국 죽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동화’되지 못하고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긴 하다. 또는 ‘홀로 있는 꽃’과 ‘울고 있는 새’의 모습에서 ‘모든 세상의 만물은 고독하게 태어나고 고독하게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아서 산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자연이 순환되고 있구나’ 정도는 해석했으면 한다.

8) 도봉 - 박두진

산새도 날아와
우짚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 끊인 곳,
홀로 앉은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빈 골 골을 되돌아올 뿐.

산그늘 길게 늘이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생(生)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 S :
- BL :
- E :
- R :
- 수식+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을 통하여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2. 음성 상징어를 통해 가을 산의 정취를 만끽하는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 ×)
3. ‘밤’은 그대가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적 배경을 상징한다. (○, ×)
4. ‘어느 마을’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를 형상화한 시어이다. (○, ×)
5. 화자의 ‘울림’과 대비되는 ‘산새’의 울음소리는 화자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 ×)

1. ○, 2. ×, 3. ×, 4. ×, 5. ×

[시 해석] 8) 도봉 - 박두진

산새도 날아와
우짚지 않고,

해석 산새가 날아온다. 산새는 울지 않는다.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해석 이번에는 하늘을 본다. 구름이 떠가고 있는데, 다시 오지 않는다.

인적 끊인 곳,
홀로 앉은
가을 산의 어스름.

해석 이 산에 인적이 끊겼다. 홀로 있다. 시기는 가을이다. 어스름은 조금 어두운 때로, 낮에서 저녁으로 가는 그때쯤을 생각하면 되겠다. 정리하자면, 화자는 낮에서 저녁으로 가는 그때에 도봉산을 보고 있다.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해석 화자는 소리 높여 부른다. 하지만, ‘누구를 부르기’ 위해 부른 행동은 아니다. ‘누구도 없이’는 화자 혼자 있다는 상황을 오히려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울림은 헛되이
빈 골 골을 되돌아올 뿐.

해석 울림은 결국 헛될 뿐이고, 빈 골짜기의 골을 되돌아올 뿐이다. 만약, 누군가의 대답이 들렸다면, 화자는 그 대답을 통해 유대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헛된 울림’만 있으므로 화자의 고독감은 더욱 강조된다.

산그늘 길게 늘어지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해석 저녁 시간대가 점차 지나자, 산그늘이 점차 길에 늘어진다. 붉은 해가 넘어가고 있다.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해석 황혼이 오고 있다. 시간이 점차 지나 곧 별과 밤이 올 것이다. 이 부분은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생(生)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해석 이때 화자가 생각한 것은 '삶'이다. '삶'에 대하여 정의하라고 하면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기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다. 그런데 화자는 '쓸쓸하다, 사랑은 괴롭다'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화자의 인생은 고독 그 자체인 것이다.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해석 그런데, 이때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은 '오로지 자신'이 아니라 '그대'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해서 '긴 밤과 슬픔'을 가졌다고 했다. 즉, 화자가 이렇게 고독한 이유는 '그대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대를 위해서'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냐.

해석 그리고 그대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화자에게 고독한 '이 밤'에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 쉬는지 말이다. 화자는 '그대'를 그리워하지만, '그대'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서 쉬는지 모른다. '그대'를 위해서라면 외로움도 견디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대'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어떠한 <보기>의 관점을 주느냐에 따라 '조국'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적 신앙에 따른 신'일 수도 있고,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시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화자는 고독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대'를 위해 이러한 자세를 갖겠다는 것 이 두 가지이다. 그리고 만약, "그대"가 이 화자 앞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고독은 말끔히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도 해 볼 수 있다.

9) 당신을 보았습니다 - 한용운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秋收)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主人)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民籍)이 없습니다
“민적(民籍) 없는 자는 인권(人權)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凌辱)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抗拒)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激憤)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化)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煙氣)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 S :
- BL :
- E :
- R :
- 수식+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2. 특정 인물의 발화를 인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3. 부정적 상황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4.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법률’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5. 화자는 자신의 집과 땅을 차지하려는 ‘장군’의 모습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
6. ‘주인’과 ‘당신’은 동일인물로 이들에 대해 화자는 잊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
7. <보기>제시형 ‘술’을 마시는 행위를 포기하는 이유는 칼과 황금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권력에 대한 화자의 굴복적인 자세를 나타내는군. (○, ×)

1. ○, 2. ○, 3. ×, 4. ×, 5. ×, 6. ×, 7. ×

[시 해석] 9) 당신을 보았습니다 - 한용운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잇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

해석 화자는 당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 화자는 ‘당신’이 가 버린 후, ‘잇을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보통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등과 같은 이유로 ‘당신’에 대해 말할 텐데, 화자는 ‘당신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것이 많다’라고 말한다. 왜일까? 좀더 해석을 해 보아야 ‘당신’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秋收)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主人)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해석 화자는 갈고 심을 땅이 없다. 다시 말해, 추수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저녁거리가 없어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이웃집 주인은 화자를 멸시한다. ‘거지는 인격이 없고, 인격이 없으므로 생명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화자는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오자 무척 슬퍼했다. 그때 화자가 본 것이 ‘당신’이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民籍)이 없습니다
“민적(民籍) 없는 자는 인권(人權)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凌辱)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抗拒)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激憤)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化)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해석 화자는 집이 없다. 또한 민적, 즉 호적도 없다. ‘이웃집 주인’과 마찬가지로 ‘장군’ 역시 화자를 모멸한다. 화자는 그에게 반항하였다. 그리고 남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것이 슬픔으로 되려는 찰나에 또 ‘당신’을 보게 된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煙氣)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해석 화자는 깨닫는다. ‘윤리, 도덕, 법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상식 선에서 볼 때,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화자의 입장에서는 ‘칼과 황금’이라는 ‘권력과 부’를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윤리, 도덕, 법률’은 헛된 것이다. 또한 영원의 사랑을 받는 것,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하는 것, 술을 마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에게 절망적인 순간들이다. ‘영원의 사랑’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포자기하는 것은 더욱 덧없는 행동이다. 그런데, 그때 본 대상이 바로 ‘당신’이다.

즉, ‘당신’은 절망적인 현실에 살아가는 순간에 보게 된 대상이며,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모든 일들은 ‘당신이 가신 후’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신’을 원망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리워만 한다. 이처럼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화자와 당신’의 관계이며, 이 ‘당신’을 향한 화자의 태도이다. <보기>의 관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당신’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한용운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조국’과 ‘부처’로 주로 해석이 된다. 물론, 내재적으로 보았을 때, ‘사랑하는 당신’으로만 이해해도 괜찮다. 이 중 ‘조국’을 중심으로 보면,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겨 겪게 되는 아픔을 드러내며, 그러는 순간마다 떠오르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윤리, 도덕, 법률’ 모두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